믿음으로 구원받아 존재가 바뀐 후 행위

(로마서 3:19~31)

19.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20.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21.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2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아 존재가 바뀐 후 행위>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 존재가 바뀐 후 행위”
제목에는 비중이 엄청난 단어들이 4개나 들어있습니다. 믿음, 구원, 존재, 행위입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주제를 명확하게 하고자 계속 행위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는 태도에 반하여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주제를 드러내고자 의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 재미있는 것은 본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원초적으로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유대종교인들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시간에는 다 이야기할 수 없어서 저녁에 온라인교회 모임에서 확장하며 언급하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말

씀드린 대로 구원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세의 율법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유대종교인들을 향해 이러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모세의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인류는 율법주의로 살고 있습니다. 유대종교인들만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에 대해 인식하고 있어야 오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쉽습니다.

우리는 구원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면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행위는 구원을 받은 뒤에야 나올 수 있음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본문 말씀을 구절구절 파고들자면 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중요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행위는 율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태도는 유대종교인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지구 위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취하고 있는 태도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격, 즉 존재의 상태 바깥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은 사람 바깥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행위의 원칙입니다. 인간의 존재를 염두에 두자면 율법은 아무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행위는 인간의 존재를 구성하고 있는 의식과 마음에서 나타납니다. 즉, 의식이 무엇인가 존재감의 대상을 붙잡고 마음이 무엇인가 좋음의 대상을 붙잡고 있는 존재의 상태로부터 행위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의식과 마음에서 붙잡는 대상이 하나님일 수도 있지만 재물이나 건강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게서 가장 무겁게 느껴지는 대상을 의식은 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있다고 느낀 것들 중에서 마음은 좋음을 바라고 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존재 상태이고 이로부터 행위가 흘러나옵니다. 그렇기에 바깥에 계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지켜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선민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와 관련하여 본문 20절을 보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깨닫기 위해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죄가 무엇인지부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스스로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있게 된 것들입니다. 그렇기에 본래 존재감이란 하나님께만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만 “있다”고 느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 있게 된 것들이기에 있는 것이 아닌

“있게 된 것”이라고 느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좋음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채움을 위한 좋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서 마음의 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의식이 하나님 이외의 다른 대상에게서 존재감을 느끼고, 마음이 하나님 이외의 대상으로 채움을 위하여 좋음을 추구하는 상태가 빗나감이고 죄입니다. 그 대상은 재물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전혀 문제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감이 죄임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존재감의 대상이자 좋음의 대상으로 인간이 구해야 할 분이십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존재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다른 것들의 존재감과 좋음을 구하고 있기에 하나님은 바깥에 계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바깥에 계시면서 주신 행위의 원칙인 율법은 사람이 지킬 수가 없습니다. 행위는 존재의 상태로부터 흘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외의 대상으로 존재가 채워져 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킬 수 없음으로부터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기를 바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율법의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과 호흡을 맞출 수가 없는 것을 보니 무엇인가 잘못 되었구나!”라고 깨닫기를 바라며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죄인 됨을 스스로 확증하려고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아! 나는 하나님과 호흡을 맞출 수가 없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이룰 수 없는 죄인의 상태가 되었구나.”라고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 죄를 깨달을 때 나타나는 일로써 율법과는 또 다른 방법으로 제시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본문 21절을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마음에 들어 하시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위한 율법 이외의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구원과 의롭게 여기심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기셨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창조주 마음에 들지 않는 피조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창조가 기록된 창세기 1장을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소나무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

라"고 하셨다면 그것을 의롭게 여기셨다는 것이고 마음에 드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설악산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다면 설악산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셨다는 것이고 의롭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창조주가 당신의 뜻대로 만드셨으니 당신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없고 의롭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것들은 인격체가 아니기에 의롭다는 말을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비유컨대 창조주의 마음에 든 상태가 의로운 것이기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기준을 충족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만은 예외입니다. 설악산이나 소나무와는 다르게 인격을 갖게 하셨습니다. 자발적이고 인격적으로 결정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으니 선악과를 따먹지 않음으로써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설악산이나 소나무와는 다르게 인간에게 자발성과 인격성을 부여하신 이유는 인격적으로 일대일로 상대하여서 하나가 되고 결합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타락입니다. 창조주의 마음 안에서 인간의 존재감이 사라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도 죽지 않았던 것처럼 타락 이후에도 몸은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몸이 아닙니다. 창조주는 모든 존재를 있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 창조주의 마음속에서 존재감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창조주의 마음에 들지 않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음에 든다는 것은 기쁨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더 이상 창조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은 이 세상에 살아있지만 존재가 창조주의 마음에서 없어져버린 상태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도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몸은 죽지 않았습니다. 몸은 죽지 않았지만 창조주의 마음 안에서 아담과 하와의 존재는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죽음입니다.

지금 지구에 사는 75억 인구 중에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존재감이 느껴지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아무리 잘났다고 떠들고 잘산다고 으스대봐야 창조주 하나님 마음에 존재감이 없다면 죽은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삐까번쩍 소란을 피우며 살고 있어도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에 존재감이 없으면 죽

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75억 인구가 아담의 후손으로 한 사람도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 존재감이 느껴지는 인간이 없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존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 안에서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존재를 바꾸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못하는 존재의 상태에서 흘러나오는 행위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자 하였습니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행위는 존재의 상태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창조주 하나님 바깥에 있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나온 행위가 하나님 마음에 들 수는 없습니다.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란다는 것은 마치 아기가 엄마를 낳겠다고 하는 것만큼이나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존재를 보십니다. 존재를 마음에 들어 하시거나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는 것이지 결코 행위를 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나타나는 일은 율법을 지키려는 행위와는 반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이외의 대상에서 존재감과 좋음을 구하던 존재의 상태는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다시 태어났어도 의식은 존재감을 필요로 하고 마음은 좋음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대해 죽었기에 의식과 마음은 더는 세상에서 존재감과 좋음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방향을 따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존재감과 좋음을 추구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의 있음만을 유일한 존재감으로 받아들이고, 그 존재감에 뒤따라서 아버지의 좋음만을 인정하고 아버지만을 간구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존재가 바뀌는 구원의 상태입니다.

한편 본문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하였습니다. 죄는 빗나감을 의미합니다. 나의 의식이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의 존재감을 받아들이고, 나의 마음이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의 좋음을 받아들이는 빗나간 상태가 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1등 되심을 포착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존재감의 여러 대상 중에서 하나님께서 1등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의

식이 존재감을 느끼게 하는 대상 중에는 배우자도 있고 자녀도 있고 나라도 있습니다. 별의별 것이 다 있지만, 하나님을 존재감의 대상으로 포착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것입니다. 또 내 마음에서 좋은 것이 많다고 느껴지는 가운데 하나님만을 유일한 좋음의 대상으로 생각해서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것입니다. 이렇게 의식과 마음에서 하나님이 1등 되시는 상태가 십자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1등이 아니었던 나의 존재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어서 하나님을 나의 존재의 의식과 마음 안으로 간구하여 받아들이는 상태가 되면 하나님도 나를 받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의로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내 마음에 든다.”라고 말씀하시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뒤에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던 것과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기존의 존재가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의식과 마음에서 1등 하시는 상태가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의식에서 1등의 존재감을 차지했구나. 나의 좋음이 너의 마음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제치고 1등을 차지했구나. 이 모습이 참 보기에 좋다. 너 내 마음에 든다.”라고 여기실 것입니다. 이것이 티끌에 지나지 않는 인간이 창조주의 마음에서 존재감을 갖게 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있는 분이십니다. 티끌 같은 내가 하나님의 존재감과 있음을 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티끌 같아도 창조주 하나님의 무게를 담게 된 것입니다. 의식이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감을 붙잡고, 마음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좋음을 붙잡습니다. 그럴 때 나는 창조주의 무게를 받아들인 상태이기에 티끌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무게를 내 안에서 느끼시고 의롭다 여기십니다. “네가 나의 마음에 든다. 너의 존재감이 느껴진다. 나도 네가 좋다.”라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존재감을 느끼고 좋아해서 나의 존재 속으로 받아들이자 하나님께서도 나의 존재의 무게감을 느끼시고 나로 인해서 기쁨을 얻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심이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 대해 죽은 자라는 자아의식이 바탕에 깔린 상태에서 의식으로는 하나님의 존재감을 느끼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좋음을 간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을 때 나타나는 일이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율법이 더 잘 지켜지고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를 따르는 유대종교인들이 행해왔던 신앙은 행위를 중시하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이외 대상의 존재감과 좋음을 의식과 마음에서 붙잡은 상태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거기서부터 나오는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들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고자 한 이유도 세상 것을 좋아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세상 것을 얻고자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행위를 차단합니다. 그러한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으며 하나님께 의롭다 여기심을 받을 수도 없으며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얻는 것은 존재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재가 바뀜으로써 달라진 행위가 나타나게 됩니다. 의식이 하나님의 존재감만을 붙잡고, 마음이 하나님의 좋음만을 구하는 상태가 존재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나오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과 호흡이 척척 맞아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는 존재의 변화와 그로부터 나오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의 성격을 따져보면 이전처럼 애를 쓰지 않는데도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의 골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방법입니다. 25절을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라고 하였습니다. 피는 곧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죽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수천수만 번을 반복해온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강조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세밀한 부분까지 점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존재를 바꾸는 일을 합니다. 이것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믿음으로써 기존의 하나님 이외의 것을 좋음으로 구하고 있던 존재의 상태는 죽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믿음의 역사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유대종교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율법주의로 살아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 없음으로 기존의 존재가 죽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흘러나오는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구원을 바꾸어서 말하자면 행위를 통해 행복을 얻으려 하고 참 만족을 얻으려 하고 진정한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배하고 계시는 이 세상 안에서 창조주 마음에 들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존재가 사라져버리고 죽어버린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나오는 행위를 가지고 진정한 평강과 행복과 구원을 추구하기는 불가능합니다. 행위는 참 구원과 참 행복과 참 평강을 얻는 방법이나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행위는 참 행복과 참 구원을 얻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아야 참으로 행위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예배당 강단에서 흘러나온 거짓말 중에 가장 위험한 거짓말이 “봉사, 충성, 헌신, 전도, 헌금을 위해서 열심과 수고를 다 하면 복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 받은 사람이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헌신도 전도도 헌금도 할 수 있습니다. 열심과 수고를 해도 기쁨 가운데 할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봉사, 충성, 헌신, 전도, 헌금, 수고와 노력을 기쁨을 향해서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음은 오직 구원이라는 복을 받은 상태에서만 기쁨과 감사의 힘으로 봉사, 충성, 헌신, 전도, 헌금, 수고와 노력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쁨을 향해서 구원받은 상태의 평강과 행복을 향해서 행위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기쁨과 행복은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 안에 나의 존재가 들어가지 않는 한 주어질 수 없습니다. 나 스스로가 하나님을 배척하는 동안에는 나의 존재는 창조주 바깥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의식과 마음 안에 하나님 이외의 다른 대상을 끌어들이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도 나를 마음에 받아들이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창조주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면서 창조주에게 복을 받으려고 하는 행위가 율법주의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도 나를 마음에 받아들이실 수가 없기에 평강과 기쁨도 주어질 수 없습니다.

행위는 창조주 하나님 안에 나의 존재감이 받아들여졌을 때 나타나는 평강과 기쁨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행위를 통해 평강과 기쁨을 향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듦으로써, 의롭다 여김을 받음으로써, 구원받음으로써 생기는 평강으로부터만 행위는 나올 수 있습니다. 행위는 구원의 수단이 아닌 표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정말 정확하게 믿음과 구원과 존재와 행위와 의로움의 개념에 대해 이해함으로써 이제부터는 구원받음의 감격과 기쁨으로 행위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